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 여부는 후보자끼리의 타협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토론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토론에 몸을 빼는 후보가 있다면 차라리 안목과 리더십을 길러 다음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다.“

- 케빈리 한국토론대학 교수 -

## 한국토론대학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발족

한국토론대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됴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낮습니다. 해서 토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토론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첫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하는 주최 측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TV 토론회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토론 형식이 후보자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실제 토론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역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정한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론회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평가가 과연 균형 잡힌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이 만난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기획되고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를 토론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평가하는 한국토론대학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케빈리 교수, 허향숙 부교수, 손은영 부교수, 최인자 부교수, 이은주 전문코치

## I. 평가의 대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경제 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시 :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오후 8:00~10:00

진행 : 박경추 MBC 아나운서

## II. 평가

### ■ 총평 : <돌아선 안철수, 거세진 이재명, 진땀 흘린 윤석열, 여전한 심상정>

-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한층 가열되었던 토론회.
- 그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연출. 토론회 규칙 위반을 두고 잦은 충돌이 벌어짐.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답변을 피하는 태도 등의 장면 연출.
- 경제라는 전문 분야에서 각 후보의 준비 정도를 잘 엿볼 수 있었던 토론회.
-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주로 공략했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공격에 나선 토론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
- 이 공간을 이용, 이재명 후보가 거세게 다그치면서 여러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진땀을 흘리는 모습.
- 여전히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심상정 후보.

#### ※ 개선 포인트

- 토론회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함.
- 질문과 답변이 정확해야 함.
-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다운 좀 더 질서 있고 격조 있는 진행이 필요.

### 1. 토론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 ※ 후보별 4자 총평

- 이재명 후보 : 권토중래. 지난 토론회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 안철수 후보 : 독야청청.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라는 앵글에서 침착하고, 합리적인 접근.
- 심상정 후보 : 고장난명. 심상정 후보에 대해 질문을 하는 후보가 거의 없었음.
- 윤석열 후보 : 질언거색.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제문제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모습.

#### 1-1. 이재명 후보

총평 : <위기에 강한 후보, 경제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안목

과시. 지난 토론회에 비해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돋보임. 전반적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피력함. 주도권 토론에서는 대장동 문제에 집중하여, 지난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격에 대해 거세게 맞받아치는 모습. 다소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

- 형식적 측면에서는 이전 토론회에 비해 안정을 찾은 모습. 표정, 제스처, 말투 등에서 무난한 모습. 몇몇 대목에서 감정이 고조되거나, 토론회 규칙(=30초 답변권)에 대해 과하게 어필하는 모습.
-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본인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한 현 정부의 잘한 점 부각.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추경확보, 손실보장,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 약속.
-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민생 경제를 챙기고 불공정완화, 공매제도 개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공약. 과학기술, 인프라구축, 교육개혁,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하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언.
- 주도권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공무원 법인카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장동 이슈로 거세게 대응하는 모습. 손팻말까지 준비하여 사전에 단단히 마음먹은 모습을 연출.
- 이번 토론에서는 이전 토론보다 자신감과 여유를 회복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 이전 토론에 비해 전략적 접근이 나타남.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리스크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입장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의 관련성 부각.
- 결과적으로,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경험을 보여준 토론회.

※ 개선 포인트

- 몇몇 대목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하는 모습. 토론에서 흥분은 금기.
- 두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기를 것. 그래야 논지가 선명하게 드러남.
- 토론회 규칙에 대한 과도한 어필, 지나치게 맞받아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
- 결과적으로 좀 더 정중하고 격조 있는 접근이 필요.

1-2. 윤석열 후보

총평 : 원고 의존도나 불필요한 제스처 개선됨. 다만, 경제 전문 토론이어서인지, 지난 1, 2차 토론에 비해 전반적으로 디테일에 약한 모습. 토론이 고조되면서 결례 연발.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한 합동 공격에 수세적인 태도.

- 형식적 측면에서는 원고 의존도나 불필요한 제스처가 개선됨. 하지만 '주도권 토론에서 두 명 이상에게 질문하기' 등의 규칙을 매끄럽게 소화하지 못하여 사회자에게 지적받음. '에...에...'하는 말투, 상대방 발언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치!'라고 하거나 약간은 비웃는 표정, "지들끼리" "글쎬?"와 같은 예의에 어긋난 말투는 고쳐야 함.
-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제 주제를 맞아 디테일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 답변을 자주 피하는 모습.
- 자신의 공약 및 상대측 공약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공약의 당위성과 공약을 내세운 이유를 국민에게 어필해야 함.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가 주식양도세 도입 이유를 묻자, 답변하지 못함. "글쎬? 가르쳐 주십시오."라며 질문자에게 공을 넘기는 모양새.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주식양도세의 연원이나 장단점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했음.

-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국채 문제를 전략으로 설정한 것은 무리. 이재명 후보의 디테일에 말려들면서 오히려 공격이 무산.

※ 개선 포인트

- 표정이나 말투 개선 필요.
- 토론 형식과 규칙에 대한 준수 필요.
-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구사할 것.
- 경제 현안 숙지를 통한 답변의 구체성 강화 필요.

1-3. 안철수 후보

**총평** : 안정된 태도로 본인의 장점이 드러나는 토론을 진행.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토론을 진행. 이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공략에 집중하다가 이번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에 치중. 윤석열 후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러워하는 모습 연출. 이 과정에서 존재감 과시. 여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분장과 표정.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질문 후 상대의 답변 경청하는 태도. 안정적인 발언.
- 다만, 단조로운 말투, 굳어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인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
-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음. 이전 대선 토론과는 달라진 자신의 페이스대로 나아가고 있음.
- 지난 2회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타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부각.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 윤석열 후보의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재원 마련 부문과 IT기업의 문제점 등.
- 본인이 공략 상대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토론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존재감 과시.

※ 개선 포인트

- 표정과 스타일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필요.
- 불안정한 발음 개선 필요.
- 연단을 잡고 있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은 불안정한 심리를 대변하는 듯 해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1-4. 심상정 후보

**총평** :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문하고 반박하였음. 하지만 낮은 지지율 때문인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했음.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이슈를 거론하여 핵심이 흐려짐. 2~3가지로 압축하여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함.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자신의 발언 시간에 대해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후보에게도 요구함. 순서 준수, 시선 처리 무난. 다만, 훈계조의 말투가 여전히 나타남.

- 내용적 측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양당의 줄다리기식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을 비판함.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편에 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피력.
- 소상공인들의 채무문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갑질 문제, 본사와 가맹점의 문제, 정부통제방역에 대해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극장 음향, 조명시설, 대리운전,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거론하며 서민을 매우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설립취지를 질문하며 문제점을 지적.
- 결과적으로, 대선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확실하게 어필하려 하였으나 짧은 발언 시간에 너무도 많은 공약을 열거하여 나열성 공약으로 마무리.
- 여당과 야당 후보들의 실책에 대한 확실한 비판의식.
- 약자를 위한 후보,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외에 토론에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모습.

※ 개선 포인트

-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훈계조의 토론은 삼갈 필요가 있음.
-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

##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총평 : 무난한 진행. 토론 규칙 점검 필요.**

- 접근 가능성, 사전 홍보 등에서 문제가 없었음.
- 4명의 토론자를 화면 정면에 스탠딩으로 처리한 것도 무난.
- 사회자를 앞쪽에 배치하여 후보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를 만들.
- 방송 앞부분에서 시장 활성화, 집값, 국토, 4차 산업 인재 양성 등 국민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방송한 것은 유권자 배려 장치로서 좋았음.
- 시청자에게 시간 표시가 보이지 않아 문제.
- **토론회 형식**은 모두발언 1분, 공통질문 1분에 이은 시간총량제토론 1 (각 6분,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공통질문 1분에 이은 시간총량제토론 2 (각 6분,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주도권토론 (각 9분), 마무리 발언 (각 1분)의 순서.
- 주도권토론에서 답변자에게 30초 답변을 보장한 것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토론 분위기를 떨어뜨릴 가능성. 답변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토론 규칙을 변경할 필요.

※ 개선 포인트

- 시청자도 알 수 있는 시간 표시 필요성.
- 답변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토론 규칙을 변경할 필요.

## 3. 사회자 평가

**총평 : 거칠어진 토론회를 정리하기 위해 애쓴 토론. 그 과정에서 몇몇 장면에서 과도한 개입 연출.**

※ 개선 포인트

- 토론 규칙의 조정으로, 사회자 개입을 줄일 필요.



## 한국토론대학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기준

(202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1. 토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후보자D	후보자E
<b>&lt;내용적 측면&gt;</b>					
각 순서에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					
-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 정리 발언					
쟁점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b>&lt;형식적 측면&gt;</b>					
시간 준수 포함 각종 규정 준수					
상대방 발언 시 경청 및 메모					
적극적 참여 여부					
적절한 시선 처리					
원고 의존도					
간결한 화법					
속도, 성량, 발음, 성조					
단정한 용모 (옷차림 등)					
적절한 제스처					
상대방, 사회자, 청중에 대한 태도					

##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개최기관 / 장소	/
사회자명 / 사회자 평가	/
토론회장 설비	
TV 화면 구성	
토론회 방영 시간	2022년      월      일
토론자 간 실제 토론 시간	총      분
사전 의제수집과 선정	
토론회 진행방식 확정 및 고지	
유권자 참여 (질문 접수)	

## 3. 사회자 평가

사회자의 진행 (개입 정도)	
토론회 진행 방식 (의제와 순서)	
쟁점 부각	
양자 토론 유도	
질문 및 답변 시간의 제한	
실시간 유권자 참여	

## 4. 사후 평가

### 4-1 기존 미디어의 토론회 평가에 대한 한국토론대학의 평가

	미디어 1	미디어 2	미디어 3	미디어 4	미디어 5
토론회 평가 보도					

### 4-2 한국토론대학이 조사한 유권자의 토론회 평가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유권자 4	



# 한국토론대학 소개

## 1. 한국토론대학은?

한국 토론 교육을 개척해 온 케빈 리 교수가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대안 교육 기관입니다. 1년 과정의 <토론 전문가 과정>과, 3년 과정의 <인문학 디베이트 100권 과정>이 메인 콘텐츠입니다. 참고로, <토론 전문가 과정>은 현재 22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 2. 케빈 리 교수는?

미국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한국에 돌아와 토론 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토론 교육 전문가입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디베이트>, <논리학 사용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30세 이후 중국, 캐나다,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경훈입니다.

## 3.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은?

한국토론대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 토론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평가의 틀이 없음을 발견, 그 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의 부교수진과 전문코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4. 연락처는?

홈페이지 : [www.한국토론대학.org](http://www.한국토론대학.org)

카페 : [cafe.naver.com/togetherdebateclub](http://cafe.naver.com/togetherdebateclub)

이메일 : [usaedunews@hotmail.com](mailto:usaedunews@hotmail.com)

전화 : 케빈리 교수 010-2256-3013